

## 9월 자비나눔 방문 35통문 장병 격려말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의 장병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든든하고 반가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듯하지만 이 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금새 다가올 겨울 채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는 여름과 겨울 두 계절밖에 없다는 우스개말이 여러분의 노고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파주 인근 비무장 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로 인해 군인들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물론 이땅의 국민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을 믿고 있는 국가와 국민이 건강합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일이며, 건강한 모습으로 복무를 다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 또한 여러분의 큰 의무입니다. 잊지 마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복무를 수행하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과 가족을 떠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야 하는 군 생활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배운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군 복무 중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 곳 독서카페를 들러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혀서 더 큰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더불어 항상 긴장해야하고 황량한 별관과 철책을 보면서 생활하는 장병들에게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따뜻한 마음을 선물하는데 진력을 다하시는 장준규 사령관님과 조종설 사

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문화의 중시하는 병영문화 혁신을 추구하는 군부대의 깊은 배려속에서 장병여러분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기를 기원하며, 이러한 의미가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